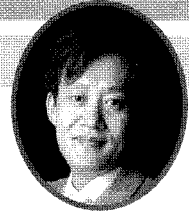


#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 인삼산업의 리모델링을 위한 추진과제(下) -



권혁인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 1. 서론
- 2. 국내 건강보조식품의 관리현황
- 3. 건강기능식품의 출현
- 4. 건강기능식품의 외국현황
- 5. 건강기능식품의 향후 관리방안

## \*가공 및 유통부문의 과제

### □ 가공 및 유통부문 관련기업 및 단체의 상호협력 필요성

- 수삼의 거래는 규격이나 단위 없이 관행에 의해 거래, 포장·표준화·계량단위 등의 면에서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을 벗어나지 못함. 금산지역의 인삼 생산량은 총 공급량의 약 10%에 불과하나 수삼 및 백삼의 약 80%가 금산에 집산되면서 원산지가 둔갑. 이 과정에서 중국산이 포함될 개연성이 있음
- 재래시장 등지에서 값싼 수입 인삼이 국산품으로 위조, 80%이상의 높은 값으로 판매
- 우리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조삼

이 유통될 경우 일차적으로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2차적으로는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될 경우 인삼유통시장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신뢰도의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가공품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해외시장에서도 한국 인삼은 수량 기준으로 홍콩시장의 1.6% 정도(2002년)를 점유하고 있으며, 공급량도 6년근 홍삼 위주로 제한. 중국내 유통되는 고려삼은 95% 이상이 위조품일 정도로 명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통질서가 무너져 있음
- 우리나라 인삼은 국제 및 국내 인삼시장에서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 과학적인 연구나 가공품의 개발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려인삼이라는 단일브랜드 제품에 대한 유통/경영(마케팅)구조가 필요한 시점임

인지도는 우수한 편이나, 가격경쟁력은 중국과 북미 등 경쟁국 인삼들의 협공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인삼 중주국으로써 고려 인삼이 가진 품질과 명성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전망됨. 그런 만큼 고려 인삼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고려 인삼이 가진 명성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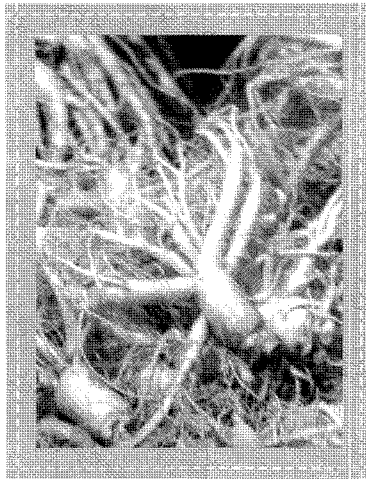
- 요약하자면 국내외적으로 우리인삼이 처해있는 상황은 홍보/마케팅의 부재로 유통질서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임. 이 시점에서는 과학적인 연구나 가공품의 개발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려인삼이라는 단일브랜드 제품에 대한 유통/경영(마케팅)구조가 필요한 시점임

### □ 가공 및 유통 기업 및 관련단체에 주어지 과제

- 중국삼과 섞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상인 규약의 제정 및 감시 절차 제정

- 생산자 및 관련단체 중심의 품질 관리 및 인증 정책에 대한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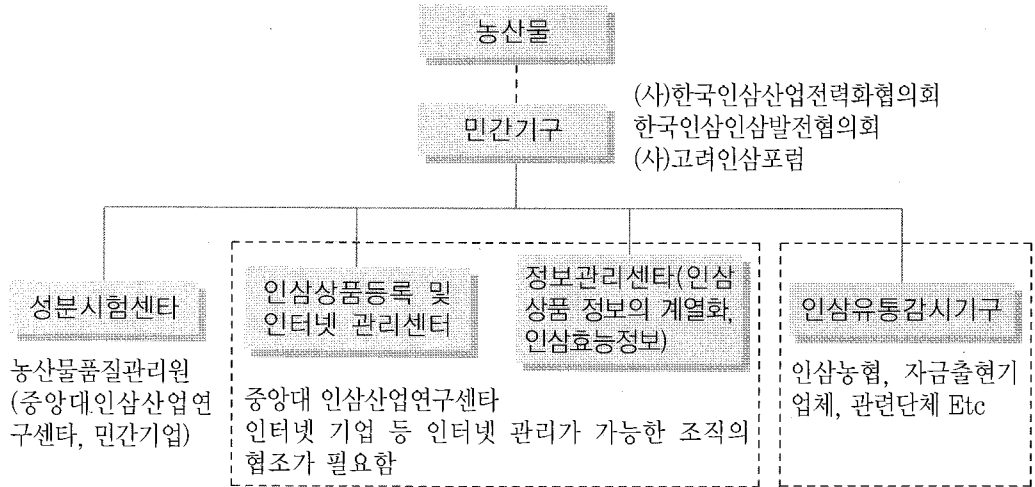


- 오프라인 유통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단체와의 업무영역 구분에 대한 협의(도서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의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서점의 가격할인을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음). 예컨대, 생산자 단체(단위농협 등)가 인터넷 판매

를 할 경우 시장정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격경쟁에 의한 시장위축을 미연에 방지함.

- 가공/유통업체의 경우 생산자 단체와 함께 고려인삼 인증제도를 협력에 의해서 도입함으로써 신뢰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지리적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가공/유통업체의 입장 반영)
- 연근표시에 대한 생산지별 이견을 조율
- 수삼유통에 있어서 새로운 포장/보관기술(최근 6개월까지 냉장보관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됨)을 도입하여 포장단위별 유통기준 개발
- 프랑스 포도주의 경우 한국인삼공사와 같은 대형/대표 가공 및 유통 브랜드가 없음. 할인점, 체인점, 전문상가 위주로 유통업체가 존재함.
- 금산의 경우 기존의 유통/물류 집산지로서 가능하기 위한 전략을 인삼산업 리모델링 과정에서

▷▷▷ 협의체의 구조



개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삼 엑스포를 기점으로 금산인삼 브랜드와 유통집산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경작부문의 과제**

- 자금지원방식이 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 개발; 지리적표시제도와 연동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함. 정부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수요자의 의견을 조율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금지원방식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함
- 친환경 청정인삼의 재배가 시급하지만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도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임. 지리적표시제도와 연동하여 청정인삼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동홍보/마케팅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시스템을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발함.

- 지리적표시제도는 품질관리가 전제되기 때문에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을 논하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추진 방법**

- 목표  
우리나라의 대표 농산물인 고려인삼에 대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지리적표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고려인삼산업의 리모델링을 완성함으로써 산업의 보전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 농림부의 지원하에 생산자 단체,

유통관련 단체,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자율적인 민간의결기구를 구성함. 민간기구는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마련과 지속적인 협의기구가 되기위해서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수익사업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함

- 인삼 상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면서 감시절차에 의해서 샘플링되는 상품과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성분검사를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성분검사 횟수가 많아질 경우 업무 분산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성분검사가 가능한 연구소에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을 감시하기 위하여 상품을 추적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상품에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등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감시체제를 도입함 (ARPC 과제를 통하여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 인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내외에 정확히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인삼정보관리센터의 개발 및 유지(기본적인 것은 ARPC과제에 의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음)
- 인삼유통감시기구는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설립하여 정기적인 감시활동을 펼침

- 품질관리표준은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하에 참여기관 중 영리법인 및 단체들의 자금출연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 미국, 유럽의 각종 표준기구의 운영형태가 벤치마킹 대상임

□ 추진 절차

- 2003년 12월 혹은 2004년 1월 중 농림부 담당관, 한국인삼발전협의회, 주요 인삼관련 단체, 전문가(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학계)토의를 통해서 협의체 구성방식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방안에 대한 결론 도출
- 2004년 5월 이전에 협의체 출범



▷▷▷ 협의의 내용

단계	내용
1차년도	1. 인삼유통관리표준(Social Standard) 제정 포장단위, 포장표시, 감시절차, 부정사레 적발시 조치방법, 재배신고 내용 및 절차, 기관별 역할, 인터넷 정보내용, 마케팅 전략 합의서, 인터넷 등록절차..... 2. 뿌리삼 중심의 원산지 표시 및 관리체계 도입(주요 참여기관은 인삼 단위 농협 및 인삼상품 가공업체) 산지별 성분 등록 내용, 원산지 인정범위, 원산지 정보내용, 성분분석 방법, 성분분석기관의 자격.....
2차년도	3. 검증 가능한 인삼 가공품의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제도 및 관리체계의 도입(예를 들어서 인삼주 제조업체의 경우 고려인삼 관리체계의 도입(예를 들어서 인삼주 제조업체의 경우 고려인삼 구입량과 인삼주 출하량에 대한 감사, 인삼주의 성분 신고, 감사 및 협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